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8. 4.(화) 15시

고려인 청년 60명, 한국에서 정체성 찾고 미래 설계

- 재외동포청, 「K-NEXT FUTURE LINK 2026 GUMI」 지원...8월 4~8일까지 구미에서 열려
- 역사교육부터 진로 탐색·교류 프로그램 등 통해 국내외 국내외 차세대 교류의 장 마련

-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 60명이 한국에 모여 고려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배우고,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동포청이 지원하고, 사단법인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운대학교가 공동 개최하는 「K-NEXT FUTURE LINK 2026 GUMI」가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운대학교와 경상북도 구미·경주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.
-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·청년 약 60명이 참가한다. 참가자들은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한민족의 문화를 배우는 교육을 비롯해 진로 설계 특강과 멘토링, 문화 체험, 팀 공동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.
 - 경주 동궁와 월지, 대릉원, 불국사 등 역사 문화유산 탐방과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,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주제로 팀별 과제를 수행한 뒤 마지막 날 발표와 성과를 공유한다.
 - 또한 국가와 지역이 다른 고려인 청년들이 토크콘서트와 팀 토론 프로그램인 'KGN LAB'을 통해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도 마련한다.
-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참가자들이 리더십과 협업 능력,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, 세계 각지의 고려인 사회를 잇는 차세대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“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,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”이라며 “이번 만남이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재외동포청도 차세대동포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”고 말했다.
- 채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은 “이번 포럼이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평생의 인연이자,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- 또한 행사에 참가한 고려인 청년 박엘레나는 “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심이 있다”며 “이번 행사를 통해 배우고, 공감하고,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K-NEXT FUTURE LINK 2026 GUMI 행사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강모세 (032-585-3280)
		담당자	주무관	김은혜 (032-585-3287)